

“바람·폭포와 소나무... 산수화 속 신선처럼 거닐어 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경기 오산시 원동에 들어선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아파트 정문에는 금색의 ‘롯데캐슬’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 주변에 자리한 마등산과 수변공원을 동서 녹지축으로 연결하도록 중앙광장을 배치해 개방감을 높였다.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 오산환승센터,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인접해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동탄역까지 셔틀버스도 운영 중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원당초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운암플 복합단지과 스트리트형 대규모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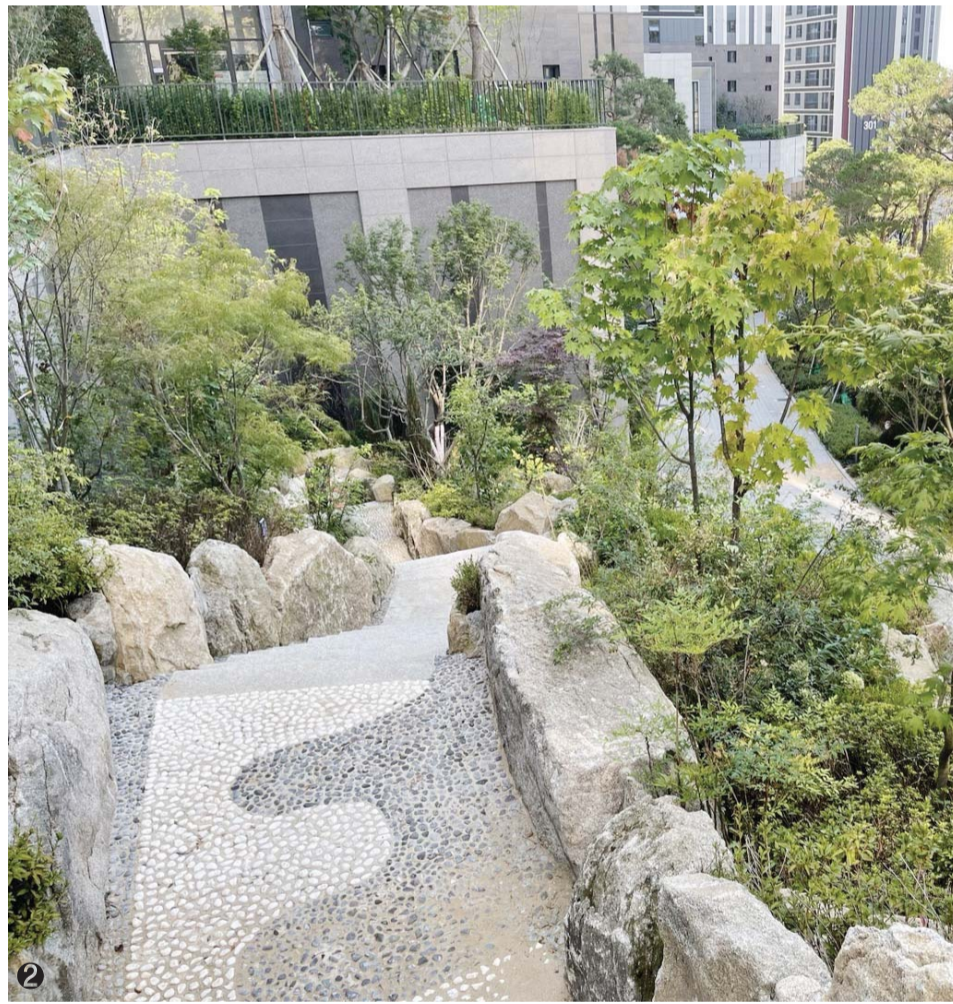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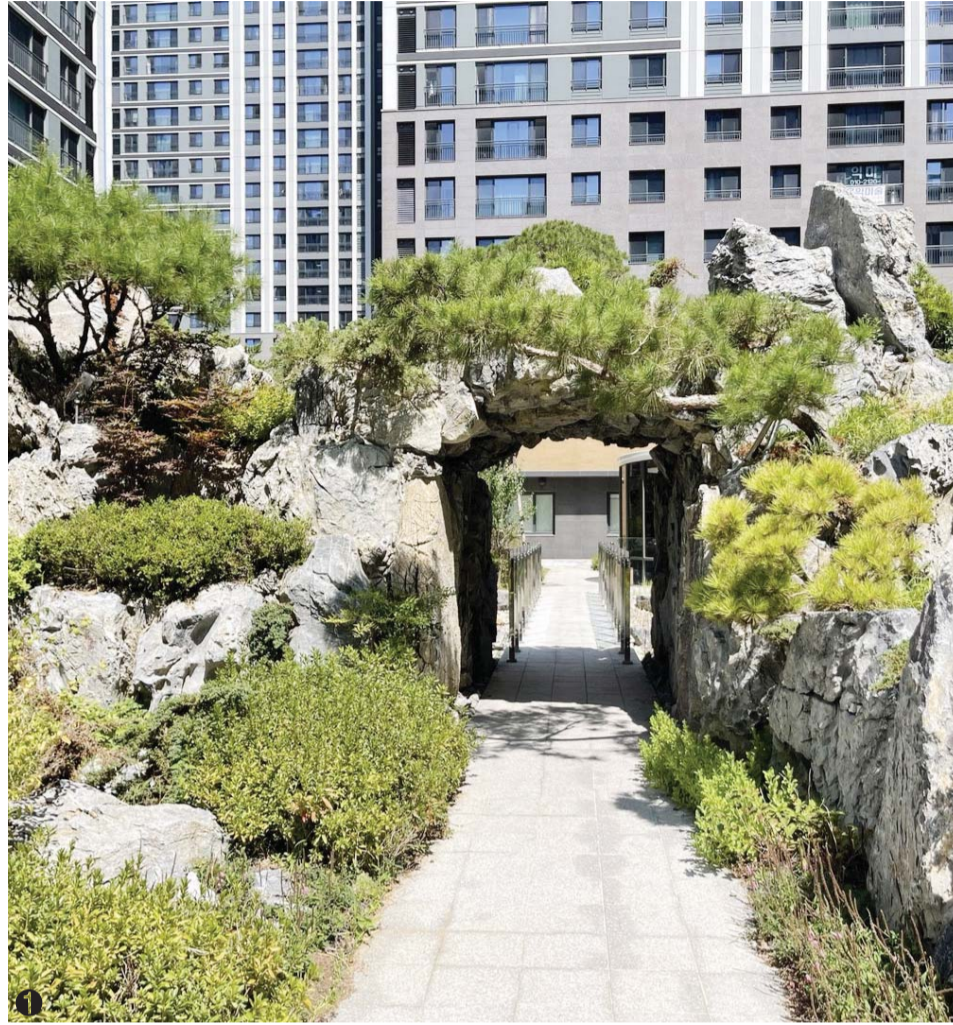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는 오산에 처음 들어선 롯데캐슬 브랜드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8개동, 2339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65㎡ ▲74㎡ ▲84㎡ ▲93㎡ ▲108㎡ ▲127㎡ ▲159㎡ ▲169㎡ ▲173㎡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구조로 적용,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 세대에 안방 드레스룸이 도입되고 타입별로는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이 구성돼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세대 각 방 온도조절시스템, 현관 스마트 날씨생활정보기 등을 도입한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3053대(가구당 1.30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곳곳에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오산환승센터 인접 최고 23층, 18개동에 2339세대 규모 조성 배롱나무 숲 속 휴게공간 ‘아쿠아락 가든’ ‘그랜드그린테라스’ 야외 모임공간도 마련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휴게공간인 ‘아쿠아락 가든’은 리조트를 연상케하는 벽면과 배롱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물과 석재 마감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원한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한 나무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나뭇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는 뜻의 ‘연리지’도 볼 수 있다. 느티나무와 행나무 두 그루가 각각 다른 뿌리에서 자라 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 기둥에서 틈새 없이 이어져 사랑 나무라고 불린다.

자연 속 또 다른 자연을 담은 ‘그랜드그린테라스’는 석가산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암석원과 조형물이 조화된 야외 모임공간이다. 도서관 앞에 펼쳐진 초화원에서 푸른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테라스 옆에 위치한 조각상 ‘공존’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유기적인 곡선을 지녔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바다처럼 생명력으로 가득한 오산의 풍경을 내포했다.

단지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섰다. 약 1만1000㎡ 규모로 조성된 커뮤니티는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2개 층 높이의 멀티코트,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 등의 시설이 도입된다. 키즈카페, 키즈집 등의 키즈 특화시설과 북카페, 게스트룸, 다목적홀과 쿠킹라운지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도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동화 테마의 놀이터 ‘그림형제의 마법책’을 비롯해 개구리를 연상시키는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높은 타워 가운데 놓인 빛의 조각을 따라 모험을 할 수 있는 ‘빛 조각아지트’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 ① 자연의미를 강조한 조경. ② 단지 내 산책로. ③ 석가산.
- ④ ‘그랜드그린테라스’ 내 설치물. ⑤ 단지 내 조각상 ‘공존’.

